

“ 일본 농간에 국산화 벽 실감 ”

◆ 현재 H-acid 시장상황을 어떻게 보는가.

● 한마디로 일본에 대한 경제적 노예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어렵게 국산화에 성공, 양질의 H-acid를 자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료업계가 이를 외면한다면 결국 또 한번 일본에게 경제적 속국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.

◆ 염료업계는 풍국정유 H-acid 가격이 비싸 연간 50억원의 추가부담 요인이 발생, 대외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.

● 아시다시피 H-acid는 국내에서도 여러번 개발이 시도됐지만 채산성이 맞지않아 생산을 중단해 왔습니다.

이 사실로만 미루어보더라도 개발비 및 생산원가 부담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.

일본도 자국내 공급가격이 10달러를 웃돌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분명 시장잠식을 노린 저가 공세라는 것은 확연한 사실이며, 제조원가도 8달러선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.

◆ 「정당한 시세」는 어느 수준을 의미하는가.

● 딱 집어 말하긴 어렵지만 6달러50센트 이상은 돼야 합니다. 풍국정유의 유럽 수출가격도 그 이상입니다.

◆ 염료업체들은 풍국정유제품을 쓸 경우 그레이드에 따라 원하는 색깔이 나오지 않는다는데...

● 물론 그레이드별로 적절한 H-acid가 따로 있겠지만, 그것은 0.01%도 안되는 사례를 들어 전체인양 주장하는 것입니다. 풍국정유제품과 외국산을 비교해 봐도 국내제품이 질적인 면에서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. 인도산·중국산·일본산·국산 각각의 특성이 있을 뿐이죠.

◆ 생산 초기단계라서 더욱 가격경쟁력이 약하다고 보는데, 손익분기점을 언제쯤으로 예상하는지.

● 정상가동을 전제로 약 3년 이상은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.

덧붙여 중국과 인도산제품 가격은 국내상황과 많이 다릅니다.

우선 환경 규제면에서 까다롭지 않고, 한국보다 인건비가 17배나 싼 나라들과 동일하게 비교하면 문제가 많죠.

◆ 최근(덤핑제소 당시부터 현재까지) 상황은.

● 말하기 곤란할 정도입니다.

염료업체들이 최근 3개월동안 단 1톤도 사가지 않아 가동률이 형편없이 떨어졌고, 현재 재고가 350톤 가량 됩니다.

150여명되던 직원들도 반이상이 빠져나가 70여명만 남아있는 등 상황이 어렵습니다.

◆ 염료업계에 하고싶은 말은...

● 하루빨리 외국의 저가공세를 공동의 노력으로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.

H-acid의 국산화 성공은 곧 정밀화학 부문의 국산화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보며, 이를 계기로 다른 화학산업분야에서도 국산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.

◆ 염료업체에서도 가격조건이 맞으면 국산 H-acid를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보는데...

● 우선 수입에 따른 시간적·물적 손실을 줄일 수 있고, 대량으로 매입해 창고에 쌓아 둘 필요없이 원료조달이 즉시 가능하다는 점, 그리고 국산품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. 결국 경영합리화를 통해 공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

1958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 졸업

58 한국산업은행 기술부

78 화인화학 전무

81 제철화학 공장장

90 풍국정유 전무